

5·18 37주년

5·18 행방불명자 75명 37년의 절규 “우리를 찾아주세요”



국립5·18민주묘지 1묘역 10구역 비석에 붙여진 행방불명자들 유영(遺影) 사진이 없는 경우 무궁화 사진을 넣었다.

강옥채 고재덕 김경순 김광복 김규성 김미정 김병근 김병균 김병대 김병원 김성기 김순금 김양수 김연배 김연남 김용석 김이기 김인수 김재영 김준성 김정수 김형호 김희수 남영남 류일대 문미숙 문성대 박갑용 박광진 박규현 박태식 박현숙 박형철 백근욱 변오연 송환철 신양균 신종실 안운재 양태열 양희태 영경선 유재성 윤성환 윤순애 이기환 이상렬 이상복 이안식 이옥섭 이재동 이정길 이진현 이창현 이철우 임소래 임수남 임옥환 장광식 정경채 정금숙 정명규 정복남 정인재 정중대 조덕래 최봉래 최영찬 최중구 최중문 최찬호 최만술 한강래 허덕래 (광주시가 행방불명자로 인정한 75명 명단)

“우리를 찾아달라.” 37년째 계속되는 5·18행방불명자들의 절규를 우리는 아직도 외면하고 있다. 5·18단체는 “5월 관련 핵심 의혹 중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행방불명자 매장지 발굴이다. 사람을 죽이고 신고 갔으면 이제 유골이라도 돌려줘야 할 것 아니냐. 군인들의 양심고백, 대통령과 정부의 해결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5·18 관련 행방불명자로 신고된 시민 숫자는 441명이다. 광주시는 관련 증거가 뚜렷한 75명을 행방불명자로 인정했다. 국립5·18민주묘지관리사무소는 가묘라도 만들어달라고 신청한 가족들의 뜻에 따라 67개의 행방불명자 묘비를 세웠다.

/김영호기자 khh@kwangju.co.kr

‘임 행진곡’ 제창 추모 절정

금남로 전야제 3만여명 참석 ... 오늘 5·18 민주묘지 37주년 기념식

5·18 관련기사 2·3·4·5·6·22면

9년여 만의 정권교체 이후 치러지는 제 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추모 열기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소외되고 축소됐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올해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광주만이 아닌 전국을 넘어 전세계 30여개 국가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국가보훈처는 18일 오전 10시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5·18정신 계승, 정의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을 거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기념식 참석 인원은 최소 1만명으로,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뿐 아니라 대구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 제주 4·3유족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세월호 유가족 등이 참여한다.

이날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를 기념하고 국민통합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기념식은 개식, 국민의례, 한화·분화에 이어 5·18민주화운동 경과보고, 기념사, 유족이 참여하는 기념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서로 엄숙하고 경건하게 진행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이던 최근 9년 동안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합창단에 의한 합창 형식으로 불리면서 국민적 반발을 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고 취임 후에는 보존처에 제창을 하도록 지시했다.

기념식 전후로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전 등에서도 지역 기념행사위원회 주관으로 기념식이 개최되며, 해외 30여개 국가 재외동포들도 각 지역에서 기념식을 갖는다.

추모열기도 어느 때보다 고조되면서 국

립 5·18 묘지를 찾는 전국 각지의 추모객 발걸음도 줄을 잇고 있다. 5월 들어 17일 까지 국립 5·18 묘지를 찾은 참배객은 21만 4000명에 달한다.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는 오는 27일 광주시 동구 옛전남도청에서 (사)5·18구속부상자회가 주관하는 부활제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기념일 하루 전인 17일 밤에는 5·18의 역사적 현장인 광주 금남로에서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원회 주관으로 시민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18전야제가 열렸다. 이날 전야제에서 5·18유가족, 세월호 유가족, 백남기 농민유가족은 무대에 올라 “밝혀지지 않은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정부에 촉구한다. 여기 모인 시민들이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최권일·김형호기자 cki@kwangju.co.kr

오월 민심잡기 정책 경쟁

민주당, ‘임 행진곡’ 기념곡 지정·헌법전문 수록·진상 규명

국민의당, ‘5·18 헬기사격 특별법’ 1호로 통과·왜곡 처벌

5·9 대선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막을 내렸지만 야권의 심장인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경쟁은 계속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호남 민심의 눈높이에 맞는 5·18 정신 계승은 물론 강력한 진상 규명 노력을 통해 호남의 적통 자리를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더불어민주당은 제37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임을 위한 행진곡’의 조속한 공식 기념곡 지정을 촉구했다.

백해련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금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민주주의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

다. 이제 제창을 넘어 하루속히 기념곡으로 지정, 5월 영령의 한을 풀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개헌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물론 ‘5·18 관련 자료 폐기 금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은폐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도 최소한 호남에서는 민주당에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6월 임시국회에서 ‘5·18 헬기사격 특별법’을 1호로 통과시키자고 여야 각 당에 공개 제안했다. 고연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5·18 헬기사격’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은 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는 광주 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에 대한 정치권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당의 1호 법안이자 5·18 민주화 운동의 왜곡 및 비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과 관련, 6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과 바른정당과의 협치를 통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공정거래위원회에 ‘재벌 저격수’ 김상조 교수 지명

국가보훈처장에 피우진

공직기강비서관 김종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지명했다. 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으로 새 정부 출범 직후 사직 처리된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의 후임자로 피우진 육군 예비역 중령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에 김종호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을 임명했다. 또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실 산하 정부비서관에 한병



김상조 공정위장



피우진 보훈처장

도 전 의원, 국정상황실장에 윤건영 전 선거대책위원회 제2상황실 부실장, 제1부속실장에 송인배 전 선거대책위원회 수행총괄팀장, 제2부속실장에 유송화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을 각각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김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제24회 광주세계김치축제 첫째마당

봄&여름

우리집 새 김치 담는 날

2017. 5. 26.(금)~5. 27.(토), 2일간

개막식 5. 26.(금) 14:00 장소 광주김치타운

세부 프로그램

더불어한마당 프로그램
기업(단체) 새김치 불우이웃 기증행사, 각 가정세대 우리집 새 김치 담는 날

무료체험 프로그램
봄꽃심기, 감자밭기수확, 영화상영, 어린이놀이마당(물총놀이, 비눗방울놀이), 반려동물 산책 등

연계 프로그램
광주김치 소비촉진 선포식 개최, 지역농산물활용 요리경진대회, 농산물소비촉진 교육, 주부농산물 지킴이발대식 및 시식행사 등

주최 / 주관 광주광역시 | 제24회광주세계김치축제위원회

체험사전접수 (김치축제 홈페이지 http://kimchi.gwangju.go.kr), 문의 ☎062)613-3991~3994